

초기 서양음악의 유입과정 검토

- 주요 기독교학교의 음악교육을 중심으로 -

이승재(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 I. 들어가는 말
- II. 서양음악의 유입과 전개
- III. 주요 학교의 음악수업 현황
- IV. 음악수업 교수와 정착과정
- V. 나가는 말

I. 들어가는 말

서양음악이 조선에 유입된 시기와 주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18세기에 유입된 천주교 관련설, 서양식 군악대의 창설과 독일인 엑켈트의 영향설, 19세기 후반에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 관련설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다양한 설명과 견해에도 불구하고 조선에 서양음악이 최초로 전해진 것이 언제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아마도 실제로 서양음악이 민간에서 불리고 유통되기 훨씬 전부터 이를 소개하는 서적들이 먼저 유입되어 간접적으로 접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가능성 등을 토대로 볼 때 서양음악의 최초 유입과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도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서양음악의 최초 유입이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대중에게 알려지고 본격적으로 불리기 시작하는 것은 1885년 개신교 선교사들이 내한한 이후의 일로 생각된다.

1세대 선교사들은 처음 조선에 입국하여 의료와 교육 등에 집중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선교를 시작하였다. 그런 가운데 차츰 조선인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예배와 기독교 학교를 통한 교육은 대중들이 서양음악을 접하는 주요한 통로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서양음악의 대중화와 저변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초창기 예배와 교육을 통해 개화기 조선 사회에는 점차 양악(洋樂)이 널리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이후 서양음악의 폭넓은 확산과 전문 음악가의 양성까지 이르게 하였으며, 이들을 통해 주일학교용 노래 등 기독교적 색채를 띤 노래뿐 아니라 한국적 정서를 담은 노랫말과 멜로디를 담은 가곡이나 아동가요 등의 창작으로도 연결될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서양음악의 유입과 전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초기 서양음악의 대중적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되는 개신교 예배와 기독교 학교의 음악수업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하며, 특히 초기 서양음악의 접촉에서부터 음악수업이 공식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하는 1910년 무렵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II. 서양음악의 유입과 전개

개신교 선교사들에 의한 서양음악의 전파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한 접촉이다.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등 공식적인 선교사의 내한 이후에도 한동안 조선에서는 기독교 선교와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진행할 수 없었다. 당시까지 조선에는 1866년의 천주교 박해(병인박해)와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에 들어와 순교했던 토마스 선교사에 대한 기억으로 인해 기독교 선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팽배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보다 이른 1884년에 조선에 들어와 고종을 알현했던 매클레이 선교사가 교육과 의료 등 분야에 한정하여 활동하도록 허락을 받았던 정황이나 서상륜, 서경조 형제, 노춘경 등 초기 신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일화를 통해서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당시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한 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선교 초기 한동안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국 북장로회 해외선교부의 총무 엘린우드(Frank F. Ellinwood)에게 보낸 선교 보고에 의하면 내한 후 약 9개월이 경과한 1886년 1월경에는 몇몇 조선인들이 선교사들의 가정에서 이루어진 예배에 참석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¹⁾ 따라서 조선인들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찬송가를 통해 서양음악을 접촉하는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최초의 장로교 조직교회인 정동교회(현 새문안 교회)가 1887년 9월 27일 창립되었는데 그 주주일인 10월 2일에 14명의 조선인 교인이 참석한 가운데 첫 예배를 드렸다고 알려져 있으며,²⁾ 이러한 초기 교회의 형성과 예배는 조선인들이 찬송을 통해 서양음악을 접하는 주요한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초창기 예배에서 조선인들은 서양식 악보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악보 없이 찬송가 가사를 전지에 써서 벽에 걸고 불렀다고 한다. 또 서양식의 평균율 음계에 익숙하지 않았던 조선인들의 찬송하는 모습에 선교사들이 당황하거나 놀라는 모습이 보고된 사례도 확인된다. “Korea Mission Field” 에는 이와 관련하여 폴 그로브(Paul L. Grove) 선교사의 기고가 실려있다.³⁾

1) H. G. Underwood's letter to Dr Ellinwood, Jan. 20. 1886.

2) 새문안교회 창립100주년 역사편찬위원회, 『새문안교회 100년사』 서울:신앙과 지성사(1995).

I shall never forget the shock that came to my musical sensibilities that first Sunday in Korea, upon bearing one of our largest native congregations in Seoul, many hundreds of them, vociferously voicing their praise.-중략- it made me sad. That first experience outraged my every musical sense and led me to the snap conclusion that the Koreans were hopelessly unmusical.

이러한 당시에 관한 선교사들의 기고 내용은 서양식 음악을 처음 접한 조선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물론 그로브 선교사는 이후 조선인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매우 음악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 조선에 서양음악이 처음 소개되었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필요에 따라 문제점을 인식하고 음악교육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갔던 선교사들의 활약 및 정착과정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서양음악 전파의 루트는 기독교 학교 또는 주일학교를 통한 교육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선교 초기 중점적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은 의료와 교육 분야에 한정되었다. 따라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등 초기 선교사들은 주로 학교를 설립하고 근대식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선교사역을 진행하였다. 배재학당, 이화학당, 언더우드학당(예수교학당) 등 초창기의 근대식 학교들은 이러한 배경하에 선교사들이 내한한 직후인 1885년부터 학생들을 모으고 교육을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초창기 교육은 당시 조선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동안 주로 영어를 가르치는 것에 집중되었으나 점차 학생이 늘고 교사가 충원되기 시작하면서 교과과정도 세분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수업을 전후한 시간이나 주일에 정기적으로 예배를 진행하여 학생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주요 학교들은 초기에 예배를 진행하면서 찬송을 가르치고 함께 부르기 시작하였으며, 점차 노래 부르기 또는 음악을 정식과목으로 편성하여 교수하였다. 각 학교별 학년에 따른 세부적인 음악수업 시수와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Ⅲ. 주요학교의 음악수업 현황

1. 경신학교

마뻬이 학당장으로 부임한 1890년 9월 이후 예수교학당(경신학교의 전신)에서 사용한 시간표를 보면 아침 08:00~09:00의 1시간 동안 아침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찬송을 하면서 서양음악을 접하였을 것으로

3) P. L. Grove, "ADEQUATE SONG-BOOKS", *The Korea Mission Field*, 1915. 4. P110.

생각된다. 아래는 예수교학당 시절의 수업시간표를 정리한 것이다.⁴⁾

시간	일과	시간	일과
05:00	기상 및 세면	06:00~07:00	한문공부
07:30~08:00	아침식사	<u>08:00~09:00</u>	<u>아침예배</u>
09:00~13:00	한문공부	13:00~14:00	점심식사
14:00~15:00	성경공부	15:00~17:00	오락 및 목욕
17:00~18:00	한문공부	18:00~19:00	저녁식사

한편 경신학교는 처음 언더우드 선교사가 설립한 이후 마펫, 밀러 등 학당장이 계속 변경되었고, 이후 장로교 선교본부의 결정에 따라 1897년 폐교되었다가 1901년 게일이 학당장으로 오면서 다시 개교하는 등 진통을 겪음으로 인해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재개교한 이후 초기 교과내용에서 음악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다만 1910년에는 서양음악을 기초로 하는 교가를 제정하는 등 음악관련 활동이 확인되며, 1911년 졸업식에서 음악대가 식순에 편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미 숙련된 수준으로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악대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배재학당

배재학당은 북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설립한 학교이다. 1885년 4월 정식 선교사로 조선에 파송된 아펜젤러는 같은 해 8월 자신의 집에서 3명의 학생과 함께 배재학당을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조선 정부의 요청에 따라 교육내용이 주로 영어를 가르치는 것에 치중되었으나 이후 학생이 늘어감에 따라 교사를 확충하고 교과목을 확대하여 나아 갔던 것으로 보인다. 근대식 학교 가운데 가장 먼저 음악수업이 교과목의 편성에서 확인되는 것은 배재학당이다. 배재학당의 1889년도 교사 및 교과목의 구성을 보면 당시 이미 ‘창가(唱歌)’ 라는 음악교육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과목은 영어와 창가 이외에도 역사, 수학, 과학, 미술 등 기타 과목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당시 본격적으로 근대적인 다양한 과목들을 교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창가’ 는 그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면 단순히 ‘노래 부르기’ 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 용어는 음악 교과로서 일본에서 먼저 사용되던 것이 우리나라로 넘어온 것이다.

이 시기는 1885년 8월을 배재학당의 설립 시기로 볼 때 개교한지 4년 정도 지난 시기이다. 새롭게 붉은색 벽돌 건물로 신축한 교사에서 더욱 많은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었고, 이전 보다 체계적인 수업을 진행하는 등 전반적으로 교육의 환경이 좋아지고 있었다. 당시 음악수업의 교사는 올링거 선교사의 부인인 베르타 올링거(Bertha S. Ohlinger)가 맡았다. 이때 일반 교양부(Academic Department)의 학년별 수업내용을 보면 1~3학년 모두 “창가” 라고 명명된 과목이 배정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고춘섭, 『경신팔십년약사』 서울:경신중고등학교(1966).

할 수 있는데 언제부터 편성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배재학당의 첫 연례보고서⁵⁾에는 당시 배재학당에서 교수한 교과목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데 1890년 교과 내용에서도 음악교육이 포함되어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1889년의 “창가”가 1890년에는 “음악”이라는 교과로 명칭이 변경되어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링거 부인이 음악 수업을 맡고 있던 1889년에서 7년이 지난 1896년에는 벙커(D. A. Bunker)가 성경과 음악을 가르친 것으로 확인되며, 당시 배재학당 학생들은 벙커의 지도와 연습 아래 1896년 11월 21일에 거행된 독립문 건립 기공식 행사에서 “조선가(朝鮮歌)”, “독립가”, “진보가”를 합창한 것으로 확인된다.⁶⁾ 이후 1906년에는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음악수업이 교과목에 편성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1908년 3월 배재학당의 학년별 교과목에는 1학년 “단음창가”, 2학년 “복음창가” 등 음악수업이 주당 1시간씩 배정되어 교수되었다.

3. 이화학당

이화학당은 1886년 5월에 첫 수업을 시작하였다. 초창기 수업은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거의 전부였다고 할 수 있다. 1889년 조선인 이경숙이 함께 교사로서 동역하면서 언문을 읽고 쓰는 과정이 추가되었다. 이화학당에서 음악 수업이 정식으로 채택된 것은 1909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음악을 가르친 것은 1891년부터였던 것으로 보인다. 1891년 미스 벤젤(Miss Margaret Bengel)이 성악, 오르간을 가르쳤고 1897년에는 피어스(Miss Nellie Pierce)⁷⁾가 합창을 가르쳤다. 1909년에는 오르간 강습을 받은 학생이 14명이나 되어 이들은 창립 기념일과 주일 저녁 예배에서 음악 프로그램을 맡게 되고 오페레타 삼자매를 공연하기도 하였다. 1891년 이화학당의 교과목은 아래와 같다.

연도	교과목
1891년	영어, 성경, 국어, 생리학, 창가, 올겐(오르간)

초기에는 음악 과목이 정식과목으로 교수되지 않았으나 학교 차원의 예배 즉 채플 수업은 비교적 초기부터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채플을 시행한 공식적인 기록은 1896년에 처음 나타난다.⁸⁾ 초기 채플 시간은 15분 정도로 오전 공부가 끝난 후 이루어졌다. 따라서의 일과 차원의 종교행사인 채플과 집회에서 찬송가를 부르

5) 이만열, “배재학당의 첫 연례보고서(1888~1889)”, 『아펜젤러 한국에 온 첫 선교사』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P332.

6) 음악에 조예가 깊었던 벙커는 윤치호가 지은 국가를 스코틀랜드 민요 로렐라이 곡에 맞추어 학생들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였으며, 이는 한국 최초의 애국가로 일컬어 지기도 한다. 독립신문, 제1권 65호. 배재100년사편찬위원회, 『배재백년사(1885~1985)』, 서울:재단법인 배재학당(1989).

7) 후에 밀러와 결혼하여 Mrs Hugh Miller 가 된다.

8) “The Korean Repository” June 1893, P261.

는 등 음악이 생활화되다시피 하였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이화학당에서는 공식적인 음악수업이 있기 전부터 이미 서양음악을 접하거나 배우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학당설립 후 초기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⁹⁾

1904년 중등과의 교과목을 살펴보면 미세스 밀러(Mrs. Hugh Miller) 성악, 미세스 브랜드(Mrs. Brand) 기악, 미세스 버시(Mrs Versy) 합창 등 서양음악이 다양한 과목으로 세분되어 교수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1908년 9월 17일자 황성신문에 게재된 이화학당 학생모집 공고에서도 교과과정으로 음악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학년별 교육과정과 수업시수를 정리한 아래 표를 살펴보면 1~4학년까지 각학년마다 음악 수업이 고르게 주당 1시간씩 배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학년별로 창가, 음악이론, 기악 등 단계별로 다양한 내용을 교수하고 있다.

종별 과목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과정	시수	과정	시수	과정	시수	과정	시수
국 어	한글로 된 복음서	5	훈아진언	5	내훈	5	미상	5
한 문	대학	5	논어	5	논어	5	논어	5
산 술	정수, 분수	4	소수, 주산	4	비례, 보합산	4	대수	5
역 사	이조사	1	고구려, 신라	1	고려	1	미국사	1
지 리	한국지리	1	지구약론	1	외국지리	2	미국지리	2
성 경	마가복음	1	요한복음	1	복음요사	1	성서 총론	1
영 어	미상	5	미상	5	미상	5	미상	5
이 과			동물, 식물	1	물리	2	화학	3
도 화	임화, 사생화	1	임화, 사생화	1	참고서	1		
생 리	생리위생	1	가정위생	1	육아법	2	육아법	2
음 악	단음창가	1	기악(풍금)	1	곡부개론,기악	1	곡부개론,기악	1
작문습자	습자,작문	2	작문	1	작문	1	작문	1
재 봉	운침법	1	재법, 자수	1	자수, 재봉기 사용법	1	양재법	1
체 조	유희,학교체조	1	유희,학교체조	1	유희,학교체조	1		
		29		29		32		32

4. 배화학당

배화학당은 남감리교 여선교사 캠벨(Mrs. Josephine P. Campbell)이 설립한 근대식 학당이다. 캠벨은 1887년 정식 선교사로 중국에 파송되어 상해, 소주를 중심으로 약 10년간 사역한 후 1897년 10월 45세의 나이로 조선에 입국하였다. 캠벨의 조선 선교는 종다리(琮橋) 교회와 배화학당의 설립 및 운영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

9) 이화90년사편찬위원회, 『이화90년사』, 서울:이화여자고등학교(1975).

배화학당은 캠벨이 내한한 이듬해인 1898년 10월 2일 설립되었으며, 초기 캐롤라이나학당 또는 자골 학교로 불리다가 1903년 윤치호가 작명한 배화(培花)로 교명이 변경되었다. 초기 학당의 교육내용은 주로 한문과 언문을 가르치는 정도에 불과하였는데, 이후 학당의 학생이 늘어나고 교사를 신축하면서 1900년 무렵에는 학교로서 기틀을 잡아가기 시작하였다. 당시 교과목은 한문, 언문, 생리학, 성경 등으로 늘어난다. 한편 학당이 설립된 지 2년 후인 1900년에는 학생들을 주축으로 하여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이후 종다리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 총 38명의 학당 생전원은 같은 해 예배와 함께 주일 학교에도 참석하게 되었으며 초창기 예배와 주일 학교를 통해 찬송가나 기독교 아동 가요 등 서양식 음악을 접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배화학당의 교과목이 일정한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는 것은 개교 후 약 5년이 지난 1903년 무렵인데, 음악 수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교육내용을 확인해 볼 때 1909년에는 ‘창가’ 수업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06년 반포된 보통학교령과 고등학교령을 통해 교과목으로 음악수업이 포함된 이후 어느 시점에 ‘창가’가 음악교과로서 포함되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5. 송실학당

송실학당은 1897년 10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베어드(W. M. Baird)가 평양에 설립한 중학교과정의 학교이다. 1891년 조선에 입국한 베어드는 1896년까지 부산 지방의 개척선교사로 활동하였으며, 1896년 선교부의 정책에 따라 교육 고문으로 임명되어 서울의 예수교학당(현 경신학교)의 교육에 관여하였다. 이후 1897년 평양으로 선교지를 옮긴 후 자신이 입안한 교육정책이 북장로교 선교부에 의해 채택됨에 따라 10월 송실학당을 설립하였다. 송실 학당의 수업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학당 초기인 1898년부터 음악 과목이 여타 과목과 함께 교수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듬해인 1899년에는 마켓선교사의 부인이 주당 2시간의 음악수업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1901년에는 헌트(Mrs. W. B. Hunt), 블레어(Mrs. Blair), 미스 하웰(Miss. Howell) 등 세 명의 교사에 의해 각각 주당 1시간씩 음악 과목이 교수되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송실학당은 초창기부터 비교적 체계적인 교육관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아마도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베어드에 의해 계획 및 관리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강사명	담당과목	주당시간
Mrs. W. B. Hunt	음악 / 수학	1 / 3
Dr. J.H. Wells	위생학	2
Mr. Blair	미술 / 체조	1 / 수시
Mrs. Blair	음악	1
Miss. Howell	음악	1

Mrs. A. A. Baird	식물학	1
Mr. Swallen	성경 / 천로역정	2 / 2
Dr. S. A. Moffett	성경 / 천로역정	2 / 2
Mr. Bernheisel	지리 / 산수	1 / 1

음악은 가창(창가)과 음악이론으로 나누어 가르쳤다. 1909~1910년 당시 숭실학당의 중학과정은 4년이었는데 1, 2학년은 음악의 가창을 중심으로 교수하였고, 4학년 과정에서는 음악이론을 가르쳤던 것으로 보인다.

IV. 음악수업 교수와 정착과정

선교사들의 내한 이후 서양음악은 예배를 통해 조선인들에게 처음 소개되었다. 1887년 장로교 최초의 조직교회인 정동교회(현 새문안교회)가 설립된 이후에는 예배를 통해 접할 수 있었을 것이며, 주일학교에서도 서양음악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초창기 교회뿐 아니라 기독교 학교의 예배 즉 찬송을 통해서도 서양음악이 전해지기 시작하였으며, 기독교 학교에서는 음악을 교과목에 편성하여 교육하기 시작하였다. 초기 음악수업은 수업시간이나 교재가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초기에는 찬송가를 부르는 것으로 수업을 대신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창가’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찬송가와 번역 또는 변안된 외국곡들을 부르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초기 배재학당의 수업편성표를 살펴보면 음악수업이 배정되어 있으나 시간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수업시간이 유동적이거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가변적이었던 상황을 나타내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정신 75년사』에 등장하는 음악 수업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음악은 예배음악인 찬송가에서부터 기타의 노래를 했는데 주로 찬송가가 음악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곡조 찬송가가 없었으므로 손으로 베껴가면서 음악을 공부했다.

한편 조선정부는 1894년 갑오개혁을 단행하면서 신교육으로의 전환과 육성을 위해 한성사범학교 관제(1895. 4)를 비롯하여 소학교령(1895. 7), 소학교 규칙대강(1895. 8), 중학교 관제(1899. 4) 등을 발표하며 교육제도 전반을 개혁한다. 또한 근대적인 교육을 위해 교과목과 교육내용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발표한다. 그러나 수학, 역사, 지리, 박물, 화학 등 다양한 근대식 학문 가운데 음악과목은 확인되지 않는다. 당시까지 서양음악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음악을 과목에 넣는다고 하여도 가르칠 수 있는 교수요원을 선발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음악이 공식적인 과목으로 등장하는 것은 1906년의 보통학교령 및 고등학교령을 공포하면서 부터이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관제가 정비되기 전까지 음악을 교수하였던 곳은 기독교 학교들이 유일하였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 학교를 중심으로 교수된 음악과목은 ‘창가’라는 명칭으로 처음 등장한다. 창가라는 명칭은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 먼저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인데, 일본의 영향으로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이전부터 기독교 학교의 음악수업 명칭으로 확인되는 모습을 볼 수 있

다. 실제 일본에서는 1880년대 초에 제작된 음악교육용 자료인 『소학 창가집』을 통해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로서 아마도 초기 선교사들이 일본의 선교단체나 학교와 교류하면서 영향을 받아 음악수업의 명칭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국내에서 공식적인 학교용 음악교재는 1910년 학부의 주도하에 일본의 『소학 창가집』을 참고하여 편찬한 『보통교육 창가집』이었다. 한편 1889년 배재학당에서 처음 ‘창가’라는 명칭으로 수업이 시작된 이래 창가수업은 기독교 학교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교수되었으며, 통감부 시절과 한일병합 이후에도 일본의 영향을 받아 ‘창가’라는 명칭은 음악수업의 보통명사처럼 사용되었다. 1906년 학부를 통해 발표된 보통학교령과 고등학교령에서 교과목의 교육요목으로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본격적으로 ‘창가’수업이 교과과정으로 편성된 후 음악수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과 내용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창가는 평이한 가곡을 부를 수 있게 하고 또한 미적 감각을 길러 덕성을 기르는데 쓰이게 함을 요지로 삼음. 창가는 단음창가를 가르치고 가사와 악보는 평이 단아하고도 학생들의 심정을 쾌활 순수하게 할 것을 요함.¹⁰⁾

당시에 발행된 창가집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의 창가집 노래를 그대로 신거나 찬송가를 개사한 것, 외국곡의 음을 사용하여 개사한 것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당시 조선인들이 접했던 서양음악의 구성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즉 초기의 예배와 채플 등을 통해 전해진 찬송가처럼 직접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전해진 음악과 기독교학교나 주일학교, 유치원 등 기독교 교육을 통해 불린 외국곡이나 변안곡, 서양음악이 일본에서 일본풍으로 변형된 후 다시 창가집에 실리면서 전해진 음악들 등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일제강점기의 창가 교육은 1910년 『보통교육 창가집』 등 음악교재가 편찬되면서 일제의 교육방침과 방향에 맞추어 교육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 대략적으로 살펴본 초기 서양음악의 유입과정을 정리해 보면, 먼저 초기 선교사들의 모임과 가정예배 가운데 찬송가를 부르면서 조선인들은 처음 서양음악을 접했던 것으로 보이며, 1887년 정동교회 등 조직교회의 설립 이후 교회의 예배와 기독교 학교의 채플을 통한 접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에는 배재학당과 이화학당 등 초창기 기독교학교에서 먼저 찬송가를 중심으로 노래부르기 수업이 진행되었는데 이때부터 이미 음악수업의 명칭은 ‘창가’로 불리고 있었다. 이 시기는 기독교 학교에서만 ‘창가’라는 이름으로 음악수업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1906년 정부의 보통학교령과 고등학교령 등 관제의 반포에 의해 공식적으로 ‘창가’가 음악수업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이후 기독교학교 이외의 여타 관공립 및 사립학교들이 ‘음악’ 과목을 교과과정에 적용하는 기준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창가가 음악과목으로 공식적으로 편제된 이후에도 한동안 제대로 된 교재는 준비되지 못했으며, 『보통학교 창가집』이라는 정식 교재가 간행된 것은 그로부터 4년이 지난 1910년경이었다. 즉 음악과목은 기독교 학교에서 찬송가를 가르치면서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부터 교수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관공립이나 비기독교계 사립학교에서는 음악 과목이 그렇게 비중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초기 신학문을 위한 교과목의 편제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사회에서는 기생 등 특수신분이 아닌 이상 음악이라는 과목 자체가 우리 민족에게 매우 생소하거나 학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10) 이만규, 『다시읽는 조선교육사』, 서울:도서출판 살림터(2010), P457.

도 생각해 볼 수 있다.

V. 나가는 말

서양음악이 최초로 전해진 시기나 형식과 별개로 서양음악이 대중적으로 확산되고 우리나라에 정착하게 된 것은 기독교 선교사들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1세대 선교사들은 내한 초기 선교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기독교 교육에 보다 집중할 수밖에 없었는데, 교육내용 가운데 음악은 근대교육을 위해서뿐 아니라 기독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교수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과목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따라서 기독교 학교들은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음악이 교과목에 들어오기 훨씬 이전부터 찬송가를 중심으로 서양음악을 가르치고 있었으며, 심지어 올겐 등 악기를 다루는 방법까지도 교수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음악이라는 교과는 당시까지 대부분의 조선인들에게 매우 생소한 것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서양음악이 기독교 학교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교수되던 시기에도 마찬가지 였던 것으로 보인다. 1894년의 갑오개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교육이 혁파되어야 할 대상으로 비중있게 다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음악은 교육되어야 할 과목으로 인식되지 못하여 누락되었으며, 음악과목이 창가라는 이름으로 교과과정에 편성되는 것은 그로부터 12년이나 지난 1906년의 통감부 시절이었다.

기독교 학교 가운데 음악이 가장 먼저 교과편성표에 등장하는 곳은 배재학당이다. 배재학당에서는 이미 1889년부터 ‘창가’ 수업이 공식과목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며, 이후 음악교육은 주당 1~2시간이 배정되는 주요 과목 가운데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이화학당도 창가와 올겐 등 음악 과목이 이미 1891년부터 확인되는 등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음악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기독교 학교에서 예배와 선교를 위한 찬송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였던 결과로 이해된다.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1897년 평양에서 문을 연 숭실학당에서는 이미 학당의 시작과 함께 음악과목이 비중있게 다루어져 ‘노래부르기’와 ‘음악이론’으로 세분되어 체계적으로 교수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한편 초창기 주로 기독교 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음악수업은 1906년의 공식적인 교과편성과 1910년의 『보통교육 창가집』이라는 음악교재의 발간 이후 관공립학교와 비기독교계 사립학교로까지 확산되어 음악수업이 보편적인 교과목으로 정착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교육의 내용은 일본식 ‘창가’ 교육이라는 틀로 고정되는 경향을 보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초기 기독교 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된 음악교육은 이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현제명, 홍난파, 박태준 등 1세대 전문 음악가들을 등장시키는데 깊은 영향을 주었으며, 이들은 기독교적인 음악뿐 아니라 다양한 형식의 가곡과 아동가요 등을 창작하면서 서양음악을 민족적 정서에 부합하는 음악으로 재탄생시키는데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고춘섭, 『경신팔십년약사』, 서울:경신중고등학교(1966).
- 김세한, 『배화칠십년사』, 서울:배화여자중고등학교(1968).
- 이화90년사편찬위원회, 『이화90년사』, 서울:이화여자고등학교(1975).
- 이만열, “배재학당의 첫 연례보고서(1888~1889)”, 『아펜젤러-한국에 온 첫 선교사』, 서울:연세대학교출판부(1985).
- 배재100년사편찬위원회, 『배재백년사(1885~1985)』, 서울:재단법인 배재학당(1989).
- 송실대학교90년사편찬위원회, 『송실대학교 90년사』, 서울:송실대학교출판부(1987).
- 새문안교회 창립100주년 역사편찬위원회, 『새문안교회100년사』, 서울:신앙과 지성사(1995).
- 이만규, 『다시읽는 조선교육사』, 서울:도서출판 살림터(2010).
- 윤현화, “개화기 서양음악의 도입과 음악교육에 관한 연구”,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전남대학, 1995).
- 김상한, “개화기 기독교음악이 한국 음악교육에 미친 영향”, 교육학 석사학위논문(명지대학교, 1997).
- 최낙희, “한국 근현대 학교음악 교육의 고찰을 통한 21세기 초등음악 교육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소고”,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서울교육대학교, 2001).
- 김사랑, “내한 선교사의 음악활동에 관한 연구-1884년에서 1945년까지를 중심으로-”, 예술전문사학위논문(한국예술종합학교, 2007).
- 이상만, “서양음악의 유입과 한국음악”, 『교수아카데미총서』(1993).
- 김정호, “찬송가 유입과 식민지 조선 음악의 양악화”, 『순천양 인문과학논총』제40권 2호 (2021).
- Grove, Paul. L. “Adequate Song-Books”, *The Korea Mission Field* 1915. 4.